

전남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대통령상 쾌거

종합대상 차지...8년 연속 일자리 평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전남도는 2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대책의 계획·집행·성과와 고용지표의 증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

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종합대상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해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군에선 광양시·무안군이 최우수상을, 여수시·강진군·영광군·장성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도와 시군의 일자리 사업이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와 시군과의 연계·협력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전남도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900여 개의 일자리와 200여 명의 청년이 전입·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는 좋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민선7기 1천 개 기업유치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역인

재 채용 목표관리제, 강소기업 지원 등 일관된 시책으로 일자리지향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906개 기업과 25조 원 규모 일자리형 투자유치를 이끌어 2만 9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를 포함해 도청 각 실·국에서 추진한 각종 일자리 사업으로 총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22개 시군과 함께 해마다 '전라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진행, 일자리 중심의 도청 운영을 시군과의 협업으로 확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특히 민선7기 동안 124개 사업에 246억 원을 투입한 전남도 자체사업 '시군 동행 일자리 사업'을 도와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 4천248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고용률 0.7%p 상승(전국 2위), 실업률 0.1%p 하락(전국 하위 3위) 등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 정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가 꾸준히 추진한 지역 최

적화 일자리 시책과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대책 추진 의지 및 일자리 핵심사업 등이 이번 시상상을 통해 빛을 보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경기 침체와 고용 위기가 지속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남도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광주·전남 상생지원의 반도체사업 육성 등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기아 AutoLand광주 생산 '더 뉴 셀토스' 출시

기아는 도시적인 스타일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국내 대표 소형 SUV '더 뉴 셀토스'를 출시하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더 뉴 셀토스는 지난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에 차급을 뛰어 넘는 성능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더 뉴 셀토스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 모델의 강인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적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원은 전장 4,390mm, 전폭 1,800mm, 전고 1,600mm, 축거 2,630mm다. (*전고 16인치 휠 적용 기준, 루프랙 미포함)

전면부는 웅장한 느낌의 메쉬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를 가로지르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와이드한 형상의 LED프로젝션을 통해 한층 혁신적이고 모던한 분위기를 구현했다.

측면부는 균형잡힌 실루엣과 불

림감 있는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으며 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가로로 길게 적용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주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준다.

기아는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라비티'도 운영한다.

그라비티 모델은 다크 메탈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 및 로워 가니쉬 ▲헤드램프 어퍼 가니쉬 ▲프론트 및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를 비롯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통해 강인한 SUV 이미지를 구현했다. (*그라비티는 시그니처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

더 뉴 셀토스의 실내에는 수평적인 이미지에 하이테크한 감성을 더해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담았다.

10.25인치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시인성을 높였으며, 통합형 컨트롤러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등 최첨단 편의사양을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의 차량

경험을 제공한다.

외장 컬러는 플루톤 블루, 발레 그린 등 신규 컬러와 루프에 퓨전 블랙 색상을 적용한 투톤 컬러 3종 등을 포함해 총 9종, 내장 컬러는 블랙, 캐러멜, 미드나잇 그린(그라비티 전용) 등 총 3종 중 선택할 수 있다.

더 뉴 셀토스는 한층 우수한 성능을 갖춘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2.0 가솔린 모델을 새로 추가하는 등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98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8km/ℓ로 효율적이고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발휘하며, 8단 자동변속기를 신규 장착해 고속 주행시 정숙성 및 변속 응답성이 향상됐다. (*16인치 휠, 2WD, 빌트인 캠 미장착 적용 기준)

2.0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149마력(PS), 최대토크 18.3kgf·m, 복합연비 12.9km/ℓ를 통해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며, 무단 변속기(IVT)를 탑재해 부드러운 변속과 정숙한 주

행감성을 경험할 수 있다. (*16인치 휠, 2WD 적용 기준)

기아는 더 뉴 셀토스에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기술을 탑재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동급 최초로 적용된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를 비롯,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

차 보조 등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과 주차를 돕는다.

이와 함께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애프터 블로우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빌트인 캠 ▲C타입 USB 충전 단자 등 운전자와 탑승객을 배려하는 신규 사양들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더 뉴 셀토스는 22일부터 본격적

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 ▲트렌디 2천160만원 ▲프레스티지 2천459만원 ▲시그니처 2천651만원 ▲그라비티 2천685만원이고, 2.0가솔린 ▲트렌디 2천62만원 ▲프레스티지 2천361만원 ▲시그니처 2천552만원 ▲그라비티 2,587만원이다. (*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이문수 기자



기아는 국내 대표 소형 SUV '더 뉴 셀토스'를 출시하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더 뉴 셀토스는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로,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에 차급을 뛰어 넘는 성능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했다. /기아 제공

25th Muan Lotus Festival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제 25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2022. 07.21(목) ▶ 07.24(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